

醫書 「東醫壽世保元」 펴낸

최근세의 醫學사상가

李 濟 馬

독창적 이론 내세워

허준(許浚)과 그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유명해졌다. 그의 책을 제목으로 한 소설이 많이 팔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의학자이고, 최근에 살았던 이제마(李濟馬, 1837~1900)는 허준에 비해 훨씬 덜 알려져 있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백과사전같은 편리한 책이기 때문에 널리 애용되는 것과는 달리, 이제마의 책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은 독창적 이론을 내세운 것이지만 모든 의사들이 참고하는 책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서로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다. 뚱뚱하고, 가냘프고, 또 위장이 튼튼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확률도 다르고, 당연히 치료법도 달라야 더 효과적인 것이다. 이미 한세기 전에 이제마는 바로 이런 이론을 정립하여 동양의학 전통에서는 아주 희귀한 의학사상가로 등

장했던 것이다. 그의 <사상>(四象)의학은 바로 인간의 체질을 넷으로 나누고 그에 알맞는 의약(醫藥)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인간의 체질에는 4가지가 있는데, 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 소양인(少陽人), 소음인(少陰人)이 그것이다.

콩팥이 크면 少陰人

이제마가 인간의 체질을 4가지로 나누는 근거는 인체의 내장이 가진 특성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허파가 크고 간이 작은 사람은 태양인, 거꾸로 간이 크고 허파가 작으면 태음인이다. 또 소양인은 지라가 크고 콩팥이 작지만, 소음인은 정반대로 콩팥이 크고 지라가 작다. 허파, 간, 지라, 콩팥은 동양의 전통적인 「오장(五臟)」 가운데 넷을 가리키는데, 나머지 하나는 염통이다. 실제로 5장이란 간(肝), 염통(心), 지라(脾), 허파(肺), 콩팥(腎)의 다섯을 말하는데, 이제마는 이 가운데 염통을 태극(太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쳐놓고 나머지 넷을 가지고 체질을 분류했다. 이는 <주역>(周易)의 사상과 태극을 의학 이론으로 동원한 것같이 보인다. 그러면 이들 사상인(四象人)의 구별을 만들어 주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마는 그 원인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의 문제에 직결된다고 생각한다.희로애락(喜怒哀樂)이 어느 기관의 크기를 결정해 주어 사상인의 구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그의 <동의수세보원>은 성명론(性命論), 사단론(四端論), 확충론(擴充論), 장부론(臟腑論), 의원론(醫源論), 광제설(廣濟說), 사상인변증론(四象人辨證論)의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마가 인간의 감정이 네가지 체질을 만들어 준다고 설명한 대목은 바로 둘째 부분, 즉 사단론에 나온다. 제1편에서 이제마는 인체의 각 기관에는 인간의 사회적인 성격같은 것도 관계가 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사교성, 도량, 식견, 경륜, 계획

太陽 · 太陰 · 少陽 · 少陰 등 四象의학설論 제기

등이 각 기관과 연계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제5편 의원론은 동양의학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중국의 여러 의학자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허준을 들고 있다. 그런데 그는 특히 후한 때의 유명한 의학자 장중경(張仲景)을 존경한 것이 분명한데, 그는 일찌기 질병을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 태음병, 소음병, 궤음병 등 6가지로 나눈 일이 있다. 이 가운데 넷은 이제마의 사상인과 명칭이 서로 통한다. 그러나 장중경이 병명(病名)으로 이를 사용한 것과 달리 이제마는 인간의 체질을 구별한 것이다. 광체설에서는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서도 사람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끝으로 제7편에서 그는 한개 군(郡)의 인구를 1만명이라면, 그 가운데 태양인은 3~4명에서 10여명밖에 되지 않고, 대개는 나머지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태음인이 가장 많아서 5천명, 소양인이 3천명, 소음인이 2천명쯤이라는 것이다.

함흥 盤龍山 출신

이제마는 1837년 음력으로 3월19일 함경도 함흥(咸興)의 반룡산(盤龍山) 아래에서 이반오(李攀五)를 아버지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주막집의 노처녀였다고 알려져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서자(庶子)출신이어서 관직에 나가 출세할 뜻을 당초부터 포기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의 이름 「제마(濟馬)」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하고 있을 때 제주도의 말을 얻는 꿈을 꾸었다하여 지은 이름으로 그대로 「제주도 말」이란 뜻이다. 또 그

의 호는 동무(東武)인데 이 호 또한 그가 어려서 공부 보다는 칼싸움같은 전쟁놀이를 좋아했대서 붙여진 것으로 전해진다. 대원군 이래 서자에 대한 차별이 적어지면서 그는 1888년 잠깐 장군 김기석(金基錫)의 추천으로 군관(軍官)직을 맡았던 일이 있고, 1892년에는 진해(鎭海)현감을 지냈다. 특히 이 때에 그는 그의 사상의학의 구상을 발전시켜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마는 평생에 역사와 철학 등 여러 방면의 책을 읽었고 <동의수세보원> 이외에도 <격치요(格致藥)>라는 책도 남긴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의 일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그 이상 전하지 않는다. 불과 1세기 전의 인물이고, 세상에 널리 알려질 만큼 뛰어난 책을 남긴 사람에 대해 이 정도밖에 알려진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1883년 7월 진해 현감을 물러난 그는 사상의학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하여 이듬해 4월13일 마쳤다고 전해진다. 일단 상, 하 2책으로 된 <동의수세보원>을 내놓은 그는 1895년에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 병환을 돌보며, 환자를 보기 시작했다. 1900년 다시 이 책을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나 일을 많이 진행하지 못하고 그해에 고향에서 작고했다. 그의 수정판 <동의수세보원>은 이듬해 6월 함흥에서 그의 문인들의 모임인 율동계(栗洞契)에서 발간했다.

“질병은 감정서 비롯”

그의 <사상의학>은 과학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아주 흥미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이 방면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준다. 사상인의 장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이치를 설명하면서, 그는 사람이 노여움을 자주 느끼게 되면 허리와 늑골이 서로 닿았다 떨어지는 수가 많아 그 자리에 있는 간을 상하거나 작아지게 만든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기쁨은 지라를, 슬픔은 콩팥을, 즐거움은 허파를 크거나 작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요즘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상의학 실행자들에 따르면, 병에 걸리는 경향을 볼 때 태음인은 기관지염, 폐염, 결핵,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에 많이 걸리고, 고혈압, 변비, 치질 등도 많은 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음인에게는 위장에 관한 질환이 많다고 보고 있다. 각기 알맞은 약품도 서로 달라서 녹용은 태음인에게 맞고, 인삼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소음인에게 가장 좋다는 것이다. 음식물도 서로 달라 대체로 태양인에게는 포도, 앵두같은 과일과 조개 등이 좋고, 소양인에게는 돼지고기, 해삼, 참외 등이 좋다. 태음인에게는 쇠고기, 무우, 콩 등이 좋은가 하면, 소음인에게는 개고기, 닭고기, 당근 등이 좋다고 한다.

이제마는 예방의학적인 측면에도 나름대로의 영양과 섭생에 대한 체계를 세웠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여야 한다. 인간의 욕망이야 말로 인간을 가두는 감옥이어서,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건강이 달려있다는 것이다.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건강을 제일 잘 지킬 수 있다는 그의 뜻은 오늘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람 體質을 넷으로 분류... 치료법도 달라”